



미 증시, 예상치에 부합한 근원 CPI 결과에 혼조세

미국 증시 리뷰

13 일(수) 미국 증시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8 월 CPI 결과에 하락 출발했으나, 에너지 가격 저하 효과 및 근원 CPI 예상치 부합, 시장금리 하락 등에 힘입어 낙폭 축소 마감. (다우 -0.2%, S&P500 +0.12%, 나스닥 +0.29%)

미국 8 월 CPI YoY 3.7%(예상 3.6%, 전월 3.2%), MoM 0.6%(예상 0.6%, 전월 0.6%) 으로 예상치 소폭 상회, 2 개월 연속 상승세. 근원 CPI YoY 4.3%(예상 4.3%, 전월 4.7%), MoM 0.3%(예상 0.2%, 전월 0.2%) 로 예상치 부합. 슈퍼코어 CPI 는 YoY 7 월 4.1% → 8 월 4.0% 기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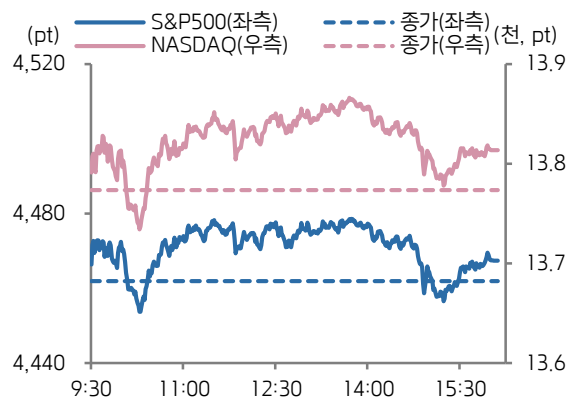
가솔린 MoM 7 월 0.2% → 10.6%, 연료유 3.0% → 9.1% 등 에너지 부문이 0.1% → 5.6% 로 급등하며 헤드라인 지수 상승의 절반이상 차지. 주거비는 0.4% → 0.3% 로 하락했으나 신차 -0.1% → 0.3%, 의료 서비스 0.5% → 0.6% 로 재차 상승.

IEA 는 9 월 원유시장 보고서에서 OPEC+의 감산 여파가 현재까지는 이란의 석유 생산 증가로 상당 부분 상쇄되었으나, 이달부터 4 분기까지 상당한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. 사우디는 지난 5 일 하루 100 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 정책을 12 월까지 3 개월 연장, 이에 앞서 러시아도 하루 30 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연말까지 유지한다고 발표. 8 월 기준 세계 석유 재고는 7 천 630 만 배럴 급락해 13 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. 올해 세계 석유 수요는 중국 소비 회복 등의 영향으로 하루 1 억 180 만 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.

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 이 최종 공모가격을 기존 예상 범위 주당 47~51 달러보다 높은 주당 52 달러로 책정할 전망이다. 보도. 주당 52 달러에 공모가 이뤄지면 회사 가치는 555 억 달러(73 조 7 천억원)에 달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, Arm 의 지분 전량을 소유한 소프트뱅크는 이번에 회사 지분의 약 10%를 매각할 계획으로 이번 공모로 약 50 억 달러를 조달할 예정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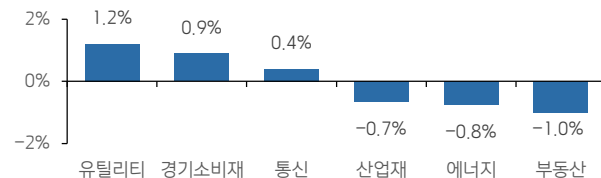
업종별로 유틸리티(+1.2%), 경기소비재(+0.9%), 통신(+0.4%) 강세, 부동산(-1%), 에너지(-0.8%), 산업재(-0.7%) 약세. 애(-1.19%)은 전일 아이폰 15 공개한 이후 가격을 동결한 요인이 중국 공무원들 아이폰 사용 금지조치 및 화웨이 프리미엄 폰 출시, EU 반독점 규제, 삼성 폴더블 폰 공세 등으로 인한 시장 점유율 축소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에 이틀연속 약세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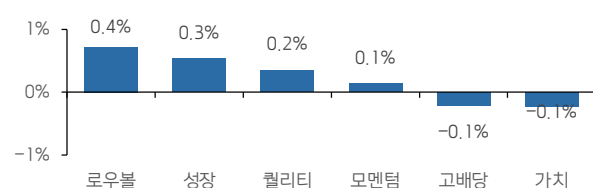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					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코스피	2,534.70	-0.07%	USD/KRW	1,329.77	+0.18%
코스피 200	335.99	+0.13%	달러 지수	104.76	+0.05%
코스닥	882.72	-1.71%	EUR/USD	1.07	+0.04%
코스닥 150	1,371.26	-1.75%	USD/CNH	7.27	+0%
S&P500	4,467.44	+0.12%	USD/JPY	147.33	-0.09%
NASDAQ	13,813.58	+0.29%	채권시장		
다우	34,575.53	-0.2%	국고채 3년	3.850	-1.2bp
VIX	13.48	-5.27%	국고채 10년	3.947	-2.3bp
러셀 2000	1,840.84	-0.78%	미국 국채 2년	4.969	-5.1bp
필라. 반도체	3,560.46	+0.55%	미국 국채 10년	4.249	-3.2bp
다우 운송	15,229.42	+0.17%	미국 국채 30년	4.343	-0.8bp
유럽, ETFs			원자재 시장		
Eurostoxx50	4,223.48	-0.44%	WTI	88.52	-0.36%
MSCI 전세계 지수	679.73	+0.02%	브렌트유	91.88	-0.2%
MSCI DM 지수	2,956.84	+0.03%	금	1932.5	-0.13%
MSCI EM 지수	974.56	-0.12%	은	22.91	-0.93%
MSCI 한국 ETF	62.03	+0.03%	구리	375.6	+0.11%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					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	MSCI 한국 지수 ETF 는 +0.03% 상승, MSCI 신흥국 ETF 는 0.13% 하락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1% 상승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326.1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.
주요 체크 사항	1. 양호하게 미 증시에서 소화했던 미 8 월 CPI 결과가 국내증시에 미치는 영향 2.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변동성 3. 개인들의 2 차전지 수급 이탈 여부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미국의 8 월 CPI 는 9 월 이후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주식시장에 반전 모멘텀을 제공 하기에 한계가 있었지만, 기초적인 물가의 하락세를 확인시켜줬다는 점은 안도요인이었던 것으로 판단. 향후 증시의 키는 기존의 전망대로 9 월 FOMC 에게 넘어갔으며, 그전까지 지수는 현재와 같은 방향성 탐색 구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(CPI 발표 후 CME Fed Watch 9 월 인상 확률 97%, 11 월 동결 확률 58%)

CPI 주요 결과들을 살펴보면, 헤드라인 CPI 는 3.7%(YoY)로 전월(3.2%)에 비해 상승했고, 컨센(3.6%)도 소폭 상회함. 이는 8 월 국제유가 강세 여파로 에너지(YoY, 7 월 -12.5% → 8 월 -3.6%) 품목의 물가가 하락폭을 크게 축소한 데서 주로 기인했던 것으로 보임. 지난해 이후 인플레이션 민감도가 높아지는 국면에서 직관적으로 시장은 헤드라인 수치에 집중해 왔기에, 헤드라인 CPI 의 컨센 상회는 "인플레 재상승 → 연준 추가 긴축 → 금리 급등 →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부담 → 주가 조정"이라는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낼 법 했음.

하지만 이날 증시 반응이 시사하는 것처럼, 이제는 시장참여자들도 헤드라인 뿐만 아니라 코어에도 집중하고 있으며, 8 월 코어 CPI 가 컨센(4.3%)에 부합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분위기(코어 CPI YoY, 5 월 5.3% → 6 월 4.8% → 7 월 4.7% → 8 월 4.3%). 또 파월 의장이 최근 가장 신경 쓰는 물가로 알려진 슈퍼코어 CPI(에너지 서비스 제외한 서비스 물가에서 주거 물가를 차감)가 "5 월 4.6% → 6 월 4.0% → 7 월 4.1% → 8 월 4.0%"으로 하락추세를 확인시켜줬다는 점도 증시에 (상승 모멘텀은 아닐지언정) 하방 경직성을 제공해줬던 것으로 보임.

물론 9 월 이후에도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경우(현재 WTI 88 달러선 vs '23 년 8 월 평균 유가 81 달러, '22 년 8 월 평균 유가 91 달러),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전체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유발할 가능성 존재. 현재 잘 내려가지 않고 있는 미 10 년물 금리 역시 향후 직전 고점(4.34%)을 돌파하는 등 오버슈팅이 나오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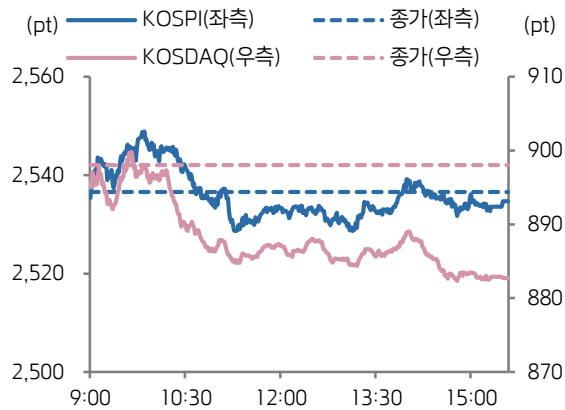
다만, 1) 미국의 타이트했던 고용시장 여건 완화 및 초과저축 여력 감소, 유로존의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원유 수요 부진 가능성, 2) 10 년물 금리 4.5%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블룸버그 서베이 결과, 3) 코스피 이익 전망의 바닥 확인 등을 고려할 필요. 이를 감안했을 때, 향후 유가, 금리, 등 매크로발 악재가 유발하는 잠재적인 증시 조정의 강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제로 증시 대응에 나설 필요.

전일 국내 증시는 미 CPI 경계심리, 나스닥 급락 등으로 장 초반부터 변동성 장세를 전개한 가운데, 2 차전지주들의 동반 주가 부진 심화 등으로 코스닥을 중심으로 약세 압력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(코스피 -0.1%, 코스닥 -1.7%).

금일에는 중립 수준의 미국 8 월 CPI 결과를 양호하게 소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, 엔비디아(+1.4%), 테슬라(+1.4%) 등 빅테크주 강세, 달러 및 금리 상승세 진정에 따른 원/달러 환율 하락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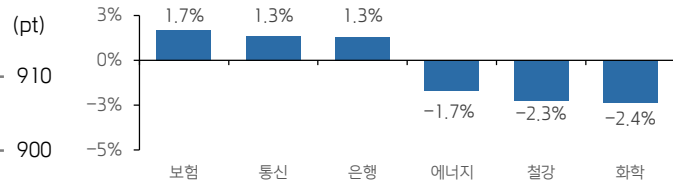
전반적인 외국인 순매수 환경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호적일 전망이,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장중반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현선물 수급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음에 대비할 필요.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인 주가 부진을 겪고 있는 코스닥의 경우, 연중 주도 업종이었던 2 차전지주들에서 개인 수급 이탈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지 여부도 금일 국내 증시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. 또 CPI 경계심리, 금리 상승, 연말 배당 기대 등으로 긍정적인 주가 환경이 조성됐던 금융주의 수급에도 이번 CPI 결과를 기점으로 변화가 생길지 여부에도 관심이 높아질 전망.

KOSPI & KOSDAQ 일종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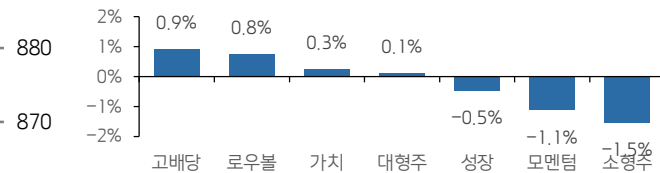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